

韓·日兩國의 傳統藝術의 傳承과 音樂·美術教育

共同研究者·韓國：教授 張昌煥¹⁾(音), 朴哲俊¹⁾(美), 柳德熙¹⁾(音),

助教授 李弘守²⁾(音), 教師 李美和³⁾(美).

日本：教授 辻 弘⁴⁾(美), 宮木英幸⁴⁾(美), 水野信男⁴⁾

(音), 助教授 鈴木 寛⁴⁾(音), 櫻井農正⁴⁾(美).

〈목 차〉

I. 序 論

III. 研究의 結果

II. 研究의 內容 및 方法

IV. 結 論

I. 序 論

世界の 나라들은 歷史적으로 傳承되어 온 自己나라의 文化遺産을 理解하고 國際化 社會에 있어서 각기의 民族과 國家의 文化를 尊重하면서 보다 넓은 世界的인 立場에서의 文化의 理解가 必要하게 되었다.

본시 文化의 理解는 言語를 媒介로 하여 보다 精神的인 深層으로 咀嚼하는 것이겠지만 音樂과 美術의 表現과 鑑賞의 感覺의 行動이나 行爲도 또한 重要的 文化의 理解의 方法이다. 그런데 音樂教育和 美術教育은 學校教育의 場에서는 創造活動으로서의 表現行動에 그 主眼點을 두고 展開되어 왔다. 또한 鑑賞教育은 社會教育의 場으로서 여러 곳에 美術館이나 博物館 文化會館 및 國樂院 등이 있어 學藝員 등의 專門家를 두고 活動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을 토대로 하여 본 論文은 韓國·日本 兩國의 藝術教育 特히 學校教育의

1) 서울教育大學 教授

2) 韓國敎員大學校 教授

3) 釜山南一高等學校 美術敎師로서 現在는 日本 兵庫教育大學 外國人 研究生

4) 日本 兵庫教育大學 教授

場에서 傳承되어 온 文化遺産의 理解와 傳統의인 놀이 등의 要素가 如何이 教材로서 展開되어 있는가, 創造活動과는 어떻게 關聯되어져 있는가 敎師들의 意識은 어떠한가 또 敎員의 養成段階에 있어서 考慮해야 할 것등을 音樂과 美術의 分野로 나누어 서로 比較 檢討 하되 美術의 分野에서는 傳統의 美術·工藝의 敎育에 대하여 比較考察을 하고자 한다.

본 共同研究를 위하여 韓國과 日本의 共通의 理解事項으로서 現代社會와 技術과의 關係에 대하여 다음 4가지의 關聯法이 있음을 確認하였다.

첫째 現代社會는 高度로 發達한 工業化 社會, 情報化 社會이며 農業化와 比較하여 人間性이 喪失되기 쉽다. 人間性의 回復을 위하여 옛부터 전해오는 傳統을 保存하고 다음 世代로 繼承하여 가도록 함에 있어 學校敎育의 關係가 커야 할 必要가 있다. 거기에는 經濟性을 무시하고서라도 繼承해야할 技術 즉 이것은 주로 手工業의 技術이지만 그 技術을 繼承하고 自然의 素材를 살린 製作活動을 繼承한다는 생각이다. 自然의 메카니즘 즉 自然의 環境으로부터 自然發生的으로 생겨난 소박한 造形活動의 意味를 어린이들에게 體驗시킨다는 意義를 重要視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造形活動이란 傳統音樂藝術이나 傳統美術活動의 分野를 包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傳統의인 音樂活動이나 造形活動을 살리면서 現代社會의 要求에 合致하는 새로운 音樂活動方法이나 造形方法과 素材를 짜넣어 現代社會에의 適應을 試圖한다는 생각이다. 이 境遇 傳統의인 技法을 어느 정도까지로 할 것인가 또 새로운 素材는 어느 정도까지를 適用할 것인가가 問題가 될 것이다.

셋째 傳統의인 技法을 機械化하는 것에 의하여 大量生産에 對應하는 方法인 것이다.

넷째 보다 積極的으로 傳統을 否定하는 생각이다. 즉 지금까지의 낡은 拘束을 拒否하고 내어버림으로서 새로운 것을 發見해 보자는 생각이다. 그것은 새로운 世界를 創造하는 것이야말로 現代의인 意味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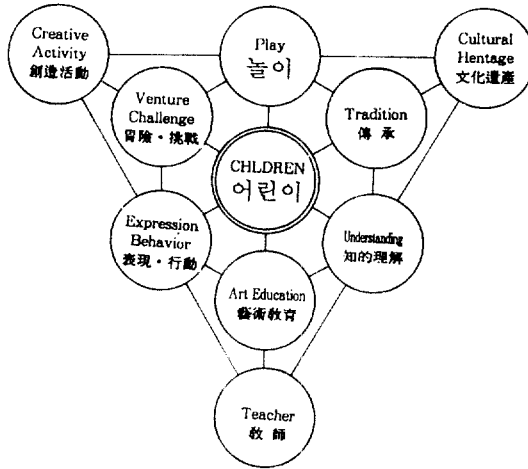
이상 네 가지 思考는 藝術이 創造活動으로서의 傳統의 技法과 創造活動의 現代社會의인 對應의 見解이지만 藝術敎育을 論함에 參考가 될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傳統과 創造敎育으로서의 파악을 整理하면 다음 세 가지가 된다.

- 1) 本來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過去의 생각으로 되돌아 감)
- 2) 變化시켜서는 안 되는 것(지금의 狀態를 繼續하는 것)
- 3) 變化시켜야 하는 것(지금까지 없던 것을 새롭게 發想하는 것)

이와같은 見地에서 藝術敎育 中에서 文化의 傳承과 創造活動과의 關聯에 대해서 다음 圖表와 같이 整理하여 본다.

예술교육 디자인 표⁵⁾



이 디자인표를 韓日 兩國의 共同研究 프로젝트의 共通의 理解로서 討議를 거쳐 敎員의 意識과 敎員養成의 바람직한 方案 등에 대하여 設問紙 調査를 하고 音樂과 美術에 대해서도 比較 檢討하기로 하였다.

II. 研究의 內容 및 方法

A. 研究의 內容

藝術敎育 全般에 대하여 比較研究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研究를 實施한다.

첫째 藝術敎育에 있어서 創造活動과 藝術文化의 傳承을 學校敎育의 場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音樂과 美術 共通으로 그 意識을 調査한다.

둘째 音樂과 美術의 分野로 나누어 共通의 設問을 하여 音樂과 美術의 敎育的 觀點의 相違와 共通點을 찾는다.

셋째 音樂과 美術의 敎育을 나누어 각기 固有의 設問을 하여 敎育內容, 敎科書, 敎育課程, 敎員의 資質과 能力 등을 比較 檢討한다.

5) 이 디자인표는 東京大學 生産技術 研究所의 渡邊陽敎授의 創案에 의한 것으로 工業製品의 開發을 위한 發想方法으로서 생각해 낸 것이다. 뒤에 東京 工業大學의 元敎授 森政弘이 그의 著書「超常識—平凡のなかの 非凡のすずめ」에서 他方面의 利用으로 展開시키고 있다.

B. 研究의 對象 및 方法

韓國의 서울教育大學, 韓國敎員大學校와 日本의 兵庫教育大學, 上越教育大學의 大學院
등에 初中等學校의 現職敎師로서 出席하는 學生 및 院生中 韓國 144名, 日本 105名에게
1990年 4月 實施하였는 바 그 比率은 다음과 같다.

年 齡 別 分 布

國/年齡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韓 國	6.3	20.8	43.0	27.0	2.8
日 本	12.3	79.0	8.6	0	0
全 體 計	9.3	49.9	25.8	13.5	1.4

性別 및 勤務校別 分布

國/性別	男	女	勤務校	國民學校	中學校	其 他
韓 國	79.1	20.9	韓國	65.2	7.6	27.2
日 本	91.4	8.6	日本	50.4	32.3	17.3
全 體 計	85.3	14.7	全體計	57.8	19.9	22.3

韓國과 日本에서의 調査 對象者가 現職 敎師로 하였으나 年齡的으로 볼 때 日本에서는
30代가 80% 가까운 숫자이고 50代 60代는 전혀 없다. 이에대하여 韓國에서는 27%가 50
代이며 30代가 21% 밖에 되지 않는다. 韓國에서는 高年齡者가 調査의 對象이 되어 있어
單純하게는 比較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 勤務校別을 보아도 日本에서는 中學校 敎師
의 比率이 많은 것도 比較 檢討할 때 考慮해야 할 것이다.

Ⅲ. 研究의 結果

設問紙의 結果 및 解析은 다음과 같다.

A. 音樂 美術 共通 藝術教育의 總合

1. 文化의 傳承과 藝術教育에 대한 質問

文 項 / 國	韓 國	日 本
1) 藝術教育은 創造性을 文化의 傳承보다 重視해야 함	6.9	14.2
2) 藝術教育은 文化의 傳承을 創造性보다 重視해야 함	2.1	1.9
3) 文化의 傳承과 創造性의 兩面을 모두 重視해야 함	90.2	82.8

韓日 兩國 모두 文化의 傳承과 創造性의 兩面을 중히 여겨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2. 文化의 傳承과 創造性을 重視한다면 그 이유?

文 項 / 國	韓 國	日 本
1) 藝術教育은 傳統과 創造의 二面性이 있기 때문이다	21.9	48.6
2) 傳統과 創造活動과는 서로 影響을 주는 것이기에	55.2	36.8
3) 民族的, 風土的인 歷史的 傳統은 無視해도 절로 影響됨	1.9	2.1

위의 表에서 보이듯이 藝術教育은 傳統과 創造活動의 兩面性이 있어 어느 쪽에도 치우칠 수 없다는 것과 傳統과 創造活動은 相互 影響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85.77%이며, 民族的, 風土的인 歷史的 傳統은 無視하고 있어도 저절로 影響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2% 밖에 되지 않았다.

또 日本에서는 藝術教育은 創造性을 文化의 傳承보다 重視해야 한다고 對答한 것이 14% 있었으나 그 이유는 藝術教育은 어린이의 自己表現이 重要한 것이고 文化의 傳承을 생각할 必要가 없으며, 創造性의 教育은 傳統을 깨는 데서부터 始作되는 것이기 때문에 傳統에 매여 있어서는 發展할 수 없다는 등의 理由를 들고 있다. 한편 韓國에서는 文化의 傳承을 생각하면 知識의 理解에 重點을 두어 創造性의 教育으로 되지 않는다 라는 見解를 볼 수 있다.

文化의 傳承과 藝術教育에 對해서의 調查項目에서는 研究者들이 當初 想像했던 結果이었다. 傳統과 創造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關係에 있는 것으로 意識하지 않고 創作活動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미 民族性이나 國民性 또는 宗教性이 潛在的으로 包含되어 있다

고 解析된다.

B. 傳統音樂과 傳統的 美術·工藝의 分類

1. 韓日 傳統藝術(音樂, 美術·工藝)에 대한 質問

1) 國民學校에서 傳統的 音樂, 美術·工藝의 教育은 基礎教育으로서 重要的가

音 樂			美 術 · 工 藝		
文項/國	韓 國	日 本	文項/國	韓 國	日 本
예	88.8	41.9	예	84.7	54.2
아 니 오	6.3	13.3	아 니 오	9.7	10.4
모 름	2.1	40.9	모 름	3.5	29.5

2) 特히 國民學校에서의 傳統的 音樂, 美術·工藝의 指導는 時期的으로 빠름으로 必要하다.

音 樂			美 術 · 工 藝		
文項/國	韓 國	日 本	文項/國	韓 國	日 本
예	4.2	9.5	예	7.6	11.4
아 니 오	79.8	56.1	아 니 오	81.9	55.2
모 름	2.1	29.5	모 름	4.2	26.6

3) 傳統的 音樂, 美術·工藝는 學校教育과는 無關係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音 樂			美 術 · 工 藝		
文項/國	韓 國	日 本	文項/國	韓 國	日 本
예	3.5	1.9	예	4.2	2.9
아 니 오	81.2	80.9	아 니 오	85.4	70.4
모 름	0.7	10.4	모 름	4.2	20.0

4) 傳統的 音樂, 美術·工藝의 傳承은 別途의 專門機關에 맞기는 것이 좋음.

音 樂			美 術 · 工 藝		
文項/國	韓 國	日 本	文項/國	韓 國	日 本
예	13.1	5.7	예	13.1	9.5
아 니 오	64.5	53.3	아 니 오	75.0	58.0
모 름	4.1	32.3	모 름	4.9	25.7

以上の 네 項目의 應答에서 傳統的 音樂, 美術·工藝의 傳承의 場으로서 學校教育이 考慮되어야 함을 보게 된다. 特히 韓國 쪽이 보다 分明히 그것을 主張하고 있다. 그것은「傳統的 音樂, 美術·工藝의 傳承은 別途의 專門機關에 맞기는 것이 좋다」의 質問에 대해 日本에서는 58%, 53%, 韓國에서는 75%, 64.5%, 5%가 否定的으로 應答하고 있다. 또 年齡의으로도 반드시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學校教育의 속에서 文化의 傳承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즉 教師가 學校에서 傳統的 音樂, 美術·工藝의 指導를 하여야 한다고 많은 應答者가 대답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2. 韓日 傳統藝術(音樂, 美術·工藝)의 教材에 대한 質問

1) 傳統音樂, 傳統的 美術·工藝의 教育資料는 어느 것이 좋은가

音 樂			美 術 · 工 藝		
文項/國	韓國	日本	文項/國	韓國	日本
教科書의 民謠	6.3	11.4	教科書의 參考資料	29.1	14.2
多様な 감상곡	18.7	32.3	傳統的 놀이등을 만듦	11.1	44.7
基礎的인 傳統 리듬樂器	15.9	13.3	基礎的인 傳統技法과 素材	55.5	13.3
基礎的인 傳統 가락樂器	5.6	3.8	教科書 以外の 傳統的 美術		
教科書 以外の 傳統音樂	6.3	10.4	工藝를 實踐	0.0	7.6
其他	47.2	24.7	其他	4.2	19.9

위 音樂의 應答에서 其他에 한국은 47.2%, 日本이 24.7%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傳統音樂의 教育資料 選擇의 自信感이 없다는 것으로 解析되며, 教科書 以外の 것에 대한 應答은 韓國 25%, 日本 42.7%로서 兩國 모두 現教科書의 傳統藝術 教育資料가 미흡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不滿으로 解析된다. 이것은 日本이 韓國 보다 두드러지게 큰 傾向을 보이고있다.

美術은 韓國에서는「教科書의 參考資料, 基礎的인 傳統技法과 素材」가 84.6이라는 敎員들의 意識인데 비해 日本에서는「傳統놀이 등의 製作」이 큰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즉 韓國에서는 指導하는 姿勢가 美術의 敎科로서 가르치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는데 대해 日本에서는「傳統놀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敎師에게 맡기어 指導하고 싶다는 姿勢가 強하게 느껴진다.

2) 教科書 以外の 傳統藝術의 指導에 대한 質問

全體的으로 매우 微少한 應答이었으나 美術의 境遇 日本에서는 燒物製作, 木竹細工, 染物, 漆藝 등 郷土의 傳統的 工藝의 製作을 하는 것이 많다. 또 建築物이나 美術館에서 鑑賞이나 傳統的 工藝의 見學을 實施하고 있다. 한편 韓國에서는 實生活에 必要한 道具를 만들거나, 놀이道具의 製作, 水墨漆彩畵의 制作, 傳統的인 韓國의 紋樣의

指導 등 民族工藝의 指導를 實踐한다고 應答하고 博物館이나 美術館에서의 鑑賞과 함께 工場 등의 見學을 行하고 있다. 이와같은 內容을 보아도 韓國과 日本의 指導方式이 서로 多름을 알 수 있다.

3) 傳統樂器의 實技指導를 하거나, 傳承玩具 만들기 指導를 한 적이 있는가

音 樂			美 術 ・ 工 藝		
문 항 / 국	韓國	日本	문 항 / 국	韓國	日本
장구	30.5	6.7	연 만들기 指導	65.9	18.0
가야금	1.9	1.9	팽이 만들기 指導	2.1	0.9
단소	4.2	2.9	竹잠자리 만들기	0.0	9.5
그 밖의 樂器	2.8	0.0			
전혀 指導한 적이 없다	52.0	80.9	指導한 적이 없다	15.2	30.4

傳統樂器 指導에서는 韓國의 장구의 指導는 되어 있지만 其他 樂器는 極히 微微한 指導에 그치고 있다. 韓日 兩國 모두 전혀 指導하지 않았다고 應答하고 있다. 이에 比해 美術에서는 質問의 內容이 音樂과는 달리 놀이指導 이었기 때문에 比較的 指導를 試圖하고 있음을 보게되지만 日本은 低調함을 보게된다.

4) 現教科書의 傳統音樂, 傳統的美術・工藝 要素에 대한 견해는?

音 樂			美 術 ・ 工 藝		
문 항 / 국	韓國	日本	문 항 / 국	韓國	日本
너무 많다	0.7	0.9	너무 많다	3.5	0.9
잘 精選 수록되어 있다	27.7	18.0	잘 精選 수록되어 있다	27.7	18.0
不足하다	63.8	21.9	不足하다	55.5	35.2
전혀 關心이 없다	3.5	34.2	전혀 關心이 없다	4.2	22.8
其他	4.2	17.1	其他	2.1	8.6

現行 教科書의 內容에 대한 見解에서 音樂은 韓國教師들은 傳統的인 內容이 不足하다와 63.8%로 나타나 積極的인 關心을 보이고 있으나 日本에서는 잘 되었다가 不足하다와 별 差異 없는 수치를 보이며 더욱이 關心이 없다가 應答 문항 중 가장 높은 34.2%로 나타나 있다. 이 점 日本의 教師 보다 韓國의 教師들이 傳統藝術에 積極的인 姿勢임을 알게 한다.

美術에서는 教科書에 傳統의 美術・工藝의 內容이 더욱 많이 수록되어야함을 希望하고 있음은 韓日 兩國 모두 共通된다고 보겠다.

3. 韓日 兩國의 傳統藝術 教育活動에 대한 質問

• 貴下는 傳統音樂 및 傳統的 美術・工藝의 指導能力을 갖고 있습니까?

音 樂			美 術 ・ 工 藝		
문 항 / 국	韓國	日本	문 항 / 국	韓國	日本
充分히 갖고 있다	0.7	0.0	充分히 갖고 있다	3.5	1.9
조금 갖고 있다	54.8	11.4	조금 갖고 있다	55.5	32.3
전혀 갖고 있지 않다	43.0	45.7	전혀 갖고 있지 않다	38.8	58.0

音樂 美術에서 모두 「能力을 갖고 있지 않다」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美術에서 日本은 58.0%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充分히 갖고 있다」고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갖고 있다」고 對答할 수 있는 自信을 갖게 할 必要가 있다. 이와같은 能力은 表現能力이나 技法이므로 教師自身이 傳統的 藝術의 指導能力에 自信이 없으면 어린이들을 指導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教師 개개인이 興味와 關心을 갖임과 동시에 敎員養成의 段階에서 傳統的 藝術의 表現能力의 體得을 시키기위한 教育課程編成의 再考의 必要性을 韓日 兩國 모두에서 痛感한다.

4. 傳統的 音樂, 美術・工藝의 鑑賞에 대한 質問

1) 傳統音樂, 傳統的 美術・工藝의 鑑賞內容으로서 주로 어떤것을 다루는가?

音 樂			美 術 ・ 工 藝		
문 항 / 국	韓國	日本	문 항 / 국	韓國	日本
各 地方의 民謠	56.9	35.2	各 地方의 傳承 玩具	17.3	25.7
傳統樂器의 演奏	25.6	18.0	歷史的 美術・工藝 作品	65.9	32.3
雅樂	0.0	3.8			
其他	5.5	6.7	其他	7.6	9.5

鑑賞內容은 音樂에서는 韓日 兩國 모두 民謠와 樂器의 演奏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美術에서는 歷史的 美術工藝品이나 各 地方의 傳承 玩具가 鑑賞의 對象이 되고 있다. 韓國에서는 歷史的 美術工藝品의 鑑賞이 壓倒的으로 많은데 대해, 日本에서는 그것이 各 地方의 傳承 玩具를 조금 上回하고 있다.

2) 傳統音樂, 傳統의 美術工藝의 鑑賞方法은 어떻게 하고 있나.

音 樂			美 術 · 工 藝		
문 항 / 국	韓國	日本	문 항 / 국	韓國	日本
直接 부르거나 演奏한다	15.9	10.4	直接 만들거나 見學을 함	21.5	32.3
레코드나 VTR로 듣는다	67.3	51.4	映畵나 VTR로 듣는다	42.3	13.3
專門家를 招請 연주듣기	0.0	3.8	專門家를 招請 演奏듣기	1.9	0.9
傳統淫樂發表會에 參觀	0.0	1.9	博物館, 美術館에 가서 參觀	16.6	5.7
其他	3.4	6.7	其他	11.8	10.4

傳統藝術의 鑑賞方法으로 音樂이나 美術 그리고 兩國 모두 直接 부르거나 直接 만든다는 比率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音樂에서는 兩國 모두 레코드나 VTR로 鑑賞하는 方法이 斷然코 優勢하다. 美術에서는 鑑賞의 方法이 實際로 만들거나 實物을 보거나 映畵나 VTR을 보이는 것이 一般的이지만 韓國에서는 시청각 教材로서 活用하고 있는데 대해 日本에서는 實際로 만들거나 實物을 보이는 것이 많으며 鑑賞과 表現은 表裏一體라는 생각이 強하고 鑑賞으로서의 方法이 確立되어 있지 않다. 또 어린이들의 興味와 關心도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3) 傳統音樂, 傳統의 美術·工藝의 鑑賞할 때 어린이들의 反應은?

音 樂			美 術 · 工 藝		
문 항 / 국	韓國	日本	문 항 / 국	韓國	日本
民謠를 부르면 活氣참	49.3	12.3	보거나 듣거나하며 활기참	33.3	18.0
민요가창 감상을 싫어함	15.2	22.8	전통미술 감상을 싫어함	7.6	4.8
전통음악 감상을 좋아함	11.1	19.0	전승완구 만들기를 원함	43.7	34.2
전통음악감상을 싫증을냄	16.6	1.9	곧 싫증을 낸다	9.0	3.8

音樂에서는 韓國은 「민요부르기」를 가장 좋아하고 전통음악 감상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日本은 大體로 싫어하는 傾向이지만 韓國과는 달리 傳統音樂의 감상을 좋아한다는 면도 볼 수 있다. 美術에서는 어린이들의 反應을 玩具만들기를 좋아하며, 보거나 듣는 것에 活氣차다고 나타났다. 이 점에서 特히 韓國 어린이들보다 積極的 임을 보게 된다.

그러나 美術의 鑑賞教材는 歷史的 文化遺產의 鑑賞에 重點을 두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結論지어 진다.

5. 韓日 兩國의 傳統音樂教育, 傳統의 美術・陶藝教育의 環境에 대한 質問.

1) 傳統音樂, 傳統의 美術・工藝에 대한 貴校의 施設 設備과 備品은?

音 樂			美 術 ・ 工 藝		
문 항 / 국	韓國	日本	문 항 / 국	韓國	日本
레코드 등 充分히 있다	2.8	6.7	傳統의 玩具를 資料로 모음	14.5	8.6
대개의 전통악기를 견 본으로서 갖고 있다	18.7	4.8	地域의 文化財의 資料(寫眞 등)을 갖추고 있다	25.0	8.6
簡單한 樂器는 한 학급 분씩 갖고 있다	2.8	0.9	圖書나 美術・工藝全集 등 이 있다	17.3	30.4
약간은 있다	59.0	58.0			
아무것도 없다	11.8	16.1	아무것도 없다	37.5	30.4

2) 貴校의 社會的 環境?

音 樂			美 術 ・ 工 藝		
문 항 / 국	韓國	日本	문 항 / 국	韓國	日本
演奏會館이 있다	4.2	30.4	博物館, 美術館, 展示館이 있다	28.4	30.4
한달에 한번 以上 傳統 音樂의 演奏會가 있다	4.9	1.9	學校에 民俗資料室이 있다	22.2	10.4
어린이들을 爲한 演奏 會가 종종 있다	2.1	6.7	어린이를 爲한 傳統의 美術 ・工藝 展覽會가 열린다	0.7	1.9
傳統音樂의 라디오 TV 特別 채널이 있다	16.6	11.4	傳統의 美術・工藝의 TV특별 채널이 있다	6.9	6.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學校의 傳統音樂, 傳統의 美術・工藝教育의 備品 등의 整備
는 兩國 모두 거의 없거나 조금은 있다가 音樂은 70%, 美術은 30%以上이 된다. 이것
은 日本에서는 오히려 地域의 社會教育으로서 整備되고 있으며, 韓國에서는 資料의 收
集이 이루어져 社會教育의 場과 더불어 整備되어 있다. 音樂이나 美術 모두 國家의 文
教政策 次元에서 施設의 整備를 조속히 補完하여 文化遺産의 傳承發展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본다.

6. 敎育養成과 傳統音樂, 傳統의 美術・工藝에 대한 質問

1) 敎育養成과 傳統音樂, 傳統의 美術・工藝의 관계에 대한 貴下의 見解는?

音 樂			美 術 ・ 工 藝		
문 항 / 국	韓 國	日 本	문 항 / 국	韓 國	日 本
敎育養成에서 傳統音樂의 指導는 필요하지 않다	1.4	2.9	敎育養成에서 傳統의 美術・工藝指導의 必要性이 없음	2.1	0.9
音樂의 專擔敎員에게는 반드시 指導해야 한다	40.9	44.7	美術 專擔敎員에게는 반드시 指導를 해야 한다	47.2	42.8
敎員은 모두 傳統音樂의 指導能力을 體得해야 함	45.1	10.4	敎員은 누구나 꼭 傳統의美術工藝指導能力을 體得해야함	28.4	9.5
希望者만 指導하면 된다	8.3	28.5	希望者에게만 指導하면 됨	17.3	33.3

敎育養成 階段에 있어서 傳統音樂, 傳統의 美術・工藝의 指導에 대한 應答을 보면 音樂, 美術 모두 專擔敎師에게는 반드시 指導해야 한다고 40.9%以上말하고 있다. 이 傾向은 兩國 모두 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敎員은 누구나 傳統藝術의 指導能力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것에서는 한국이 음악에서 45.1%미술에서 28.4%등 많은 수가 提示되었으나 日本에서는 10.4, 9.5%등 韓國과는 對照的인 양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는 他人에게 넘기려는 心性에서 온 것으로 解析된다. 또한 韓國의 國民學校에서는 아직 敎科專擔制가 一般化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日本에서는 小學校에서도 藝能과 의 敎科專擔制가 一般化 되어 있는 結果로도 解析한다.

2) 敎育養成大學에서 몸에 붙이게 할 傳統音樂, 傳統의 美術・工藝의 實技能力 指導는?

音 樂			美 術 ・ 工 藝		
문 항 / 국	韓 國	日 本	문 항 / 국	韓 國	日 本
리듬악기(북 종류)의 演奏能力이 熟達된 程度	17.3	12.3	傳統의 美術・工藝素材를 숙지하고 技法을 수련해야 함	44.4	12.3
가락악기(현, 피리류)의 熟練된 演奏能力을 갖추	8.3	6.7	韓國畫(수묵화包含)등 傳統의 表現 技法이 되도록 함	26.3	4.8
리듬, 가락악기를 모두 잘 演奏할 수 있을정도	47.9	8.6	傳統의 器具 玩具의 制作이 될 수 있을 程度	2.1	17.1
演奏方法을 說明할 수 있을 程度	15.9	40.0	손쉬운 資料(나무, 대, 짚, 흙)로 전통장난감을 만들	17.3	47.6

音樂의 實技能力에서는 韓國은 리듬, 가락악기를 모두 잘 演奏할 수 있을 程度가 47.9%라는 半數가 應答하여 傳統樂器를 敎員養成 大學에서 잘 指導하여 批出하여야 되겠다고 보여진다. 한편 日本에서는 演奏能力까지는 不過 8.6%이고 演奏方法을 說明할 수 있을 程度가 40%로 되어 있어 傳統音樂에 대한 消極的인 傾向이 있는 것이 아닌가 解析된다. 美術에서는 韓國에서는 解析에 따라서는 아카데미하게 訓練해야 한다는 注文에 대해, 日本에서는 손쉬운 資料로 傳統的 玩具를 만들 수 있을 程度가 半數가깝게 나타나서 音樂과 마찬가지로 日本은 傳統的인 美術技法에 消極的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3) 敎師로서 몸에 붙이게 할 傳統音樂, 傳統의美術・工藝의 鑑賞能力 指導는?

音 樂			美 術 ・ 工 藝		
문 항 / 國	韓國	日本	문 항 / 國	韓國	日本
教科書의 감상곡을 說明할 수 있을 程度	60.4	47.6	教科書의 鑑賞圖版을 說明할 수 있을 程度	40.9	24.7
傳統樂器로 감상곡의 테마를 시장시주할 程度	25.6	15.2	居住地 近方의 文化財에 대해 說明할 수 있을 程度	16.6	40.9
敎材曲의 全部를 演奏할 수 있을 程度	4.9	2.9	傳統的 美術工藝를 系統的으로 說明할 수 있을 程度	36.1	15.2
시청각敎材와 器具를 취급할 수 있을 程度	6.3	14.2	其他	1.4	0.9

傳統音樂의 감상곡은 그 樂曲水準이 높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敎師가 直接演奏할 수 있는 技能을 갖게 함이란 不可能한 것이므로 韓日 兩國 모두 教科書의 감상곡이나 감상도판을 說明할 수 있을 程度를 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日本에서는 居住地 近方의 文化財 등에 대해 說明할 수 있을 程度를 敎員養成 大學에 期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금 다른면도 볼 수 있다.

IV. 結 論

韓日 兩國의 現職敎員을 對象으로 傳統音樂, 傳統의 美術·工藝의 敎育에 관한 設問紙 調査分析 結果를 項目別로 比較 考察하였다. 이 結果로서 보여지는 總合의인 事項은 각 나라의 傳統의인 文化와 藝術, 놀이 등을 後世에 繼承함의 重要性은 충분히 의식되어 있다고는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社會機構의 變革이 進展되고 農耕生活로부터 工業化社會에도, 또 보다 나아가서 情報化社會로 進行한다고 하여도 現在까지 이룩하여 온 文化의 理解와 繼承의 意義는 認定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家族制度가 崩壞되어 가고, 人口의 都市에로의 集中에 의한 過密化와 地方의 過疎化 現狀은 그 勢가 점점 深化되어 가고 있으며, 더욱이 朝父子, 父母 등 宗族 關係가 稀薄해 가는 現時點에서 地域, 또는 鄉土의 文化遺産의 傳承을 擔當할 者는 敎員이나, 地方行政機關의 일로 되었다. 그러나, 學校敎育의 場에서의 具體의인 傳統藝術의 指導에 대해서 韓國과 日本과는 종종 다른 點을 보였다.

첫째, 韓國에서는 「指導한다」 「가르친다」라는 것의 態度가 明瞭하며, 傳統文化에 대하여 強하게 意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日本에서는 「傳統文化의 敎育」이라는 指導姿勢보다도 오히려 地域 周邊의 資料를 使用한 「놀이」를 通하여 어린이의 興味를 重視한 自然의 行動을 期待하고 있어 傳統文化의 敎育이라는 姿勢가 弱하다고 生角된다.

둘째, 設問紙 調査의 應答에서 「예」 「아니오」 「모름」의 選擇紙를 選擇함에 있어 日本에서는 「모름」을 選擇한 수가 韓國에 비하여 많다는 것이다. 예, 아니오를 分明히 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自身이 없는 것인지, 無責任한 回避의인 대답인 것인지, 아니면 이들 要因들이 모두 複合된 것인지는 이 集計로서는 分明하지 않으나, 보다 詳細한 分析을 行한다면 그 原因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셋째, 敎員養成의 方式과 敎員으로서의 傳統音樂, 傳統의 美術·工藝의 表現의 態度에 대해, 傳統藝術의 技法의 傳授는 專門의 文化財의 技能保有者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며 모든 敎員에게 期待하는 것은 不可能할 것이다.

넷째, 美術에서, 韓國에서는 “傳統의 美術·工藝의 素材를 알고 技法을 訓練하여야 한다” 또는 傳統의 表現 技法이 익숙하기를 期待하는 것이 70%가까이 바라고 있는 것은, 日本의 “傳統의 器具나 玩具를 만들 수 있는 程度” “손쉬운 材料로서 傳統의 장난감을 만들 수 있을 程度”가 65%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結果라 하겠다.

다섯째, 鑑賞能力에 대해서도 音樂 美術分野가 모두 敎科書의 內容을 說明할 수 있을 程度를 期待하고 있는 것은 兩國 모두 같게 나타났다. 音樂에서는 그 밖의 技能의 要求에서도 같은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美術에서는 韓國은 「傳統의 美術

·工藝를 系統的으로 說明할 수 있을 程度」가 36%의 教師가 期待하는 데 대해 日本은 15%이고, 반대로「居住地 근방의 文化財 등에 대해 說明할 수 있을 程度」를 期待하는 것은 日本에서는 41%에 대해 韓國에서는 17%에 不過하다. 이와 같이 韓國과 日本과는 傳統藝術에 대한 定義와, 教育의 場에 있어서의 思考方式, 期待되는 教師像 등에 差異가 있음이 窺보인다.

이를 전제로 以後부터의 音樂 美術 教育의 姿勢와 傳統的 文化的 教育方法에 대해 韓日 兩國에서 서로 理解하며 共同研究를 더욱 進展시킬 必要가 있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1. 辻 強, 杉山明搏, 「造形 形態論」三晃書房
2. 森 政強, 「平凡の中の非凡のすすめ」PHP文庫
3. アルビン・トフラー, 「第3の 波」日本放送協會出版部

韓日兩國の傳統藝術の傳承と 音楽・美術教育

世界 各國の教育者達は、次の世代達に歴史的に傳承されてきた自分の國の文化遺産を理解させ、國際化社會において、各民族と國家の文化を尊重しながら一層廣い世界的立場で文化を理解するように導く必要があると信じている。本研究は韓日兩國が保っている傳統藝術と關聯した共通的な問題點を發見し、藝術教育を通じて、その問題を解決する道を模索することに、その目的がある。

韓國と日本の10名の音楽・美術教育者達が一緒に文献研究と討論、現職 教師（韓國144名、日本 105名）に對する設問調査を通じ、

- 1) 音楽・美術教育での傳統藝術に對する認識の共通點と相異點はなにか。
- 2) 傳統藝術と文化の傳承は、どう成り立つのか。
- 3) 傳統藝術と關聯した現在の教育内容と教科書、教育課程、教員の資質と能力は、どうなのか、等の問題を考察した。

この調査研究で現われる、いくつかの重要な結果は次のように整理される。

1) 韓日兩國の音楽・美術教育者達は、各々傳統藝術と傳統的な遊び等を後世に繼承するのが重要であるとの認識を共有しておるのを見せている。現職教員達は急激な変化を受けている現在、今まで成し遂げてきた文化の理解と傳承は、ひじょうに意義ある事だと認定している。しかし、韓國の教員達は傳統藝術と文化を「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積極的な態度を持っているのに反し、日本の教員達は教育よりは、かえって「地域の資料を利用した傳統的遊び中心、興味中心の自發的接近」を期待している点で傳統藝術の指導に對する姿勢の差を現わしている。

2) 韓日兩國で、おなじく人口の都市集中現象のため世代間の縦的連結が微かなことになって傳統藝術と地域文化の傳承は教員と地方行政機關にまかせているのだが、それは教員たちよりも専門的な技能保有者達にまかせるがよいという見解が支配的である。

3) 兩國教員達は傳統樂器の演奏能力と傳統音楽の鑑賞指導能力が不足であると自から評價している。兩國教員達は、同じく自分達の傳統的音楽作品を説明することが出来るぐらいの眼目を持つのを希望している。しかし美術鑑賞指導のための自分達の能力にする兩國教員達の見解にはおもしろい差を見せている。韓國教員達のうち36%は傳統美術と工藝を體系的に説明できることを願う反面、日本教員達のうち15%だけがそれを期待している。また、日本教員の41%が住居地域の文化財に對し説明できるぐらいを願う反面、韓國教員の17%だけがそれを期待している。

此プロジェクトの研究者達は韓日兩國教員達の傳統藝術に關する觀點と、その教員の役割に對する期待が多少の違いがあるけれど、いろんな面で共通した状況の中にいるという點を確認し、一層細密な部分の共同研究が必要だという点に同意した。

A STUDY ON EDUCATION OF TRADITIONAL MUSIC, FINE ARTS, AND CRAFTS IN KOREA AND JAPAN

A great number of educators in the world believe that they should lead future generations to understand their native cultural heritage which has developed throughout a history of their nation and to see the cultures in cosmopolitan perspective, respecting ones from the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roject was to examine the problems regarding to the traditional music and fine arts which commonly exist in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and then to find the way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music and fine arts education. Ten participators, music and fine arts educators from Korea and Japan, reviewed related literature, discussed, and investigated (answers: 144 Korean teachers and 105 Japanese) to identify: (1) are there any differences between educators' opinions on the traditional arts education in their own country? (2) how have been their traditional arts and cultur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3) What do educators think of current musical contents, curricular, textbooks, and teaching techniques concerning with traditional arts education?

The main conclusions from the investigation are as follows: first, music and fine arts educators from Korea and Japan commonly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ransmitting their traditional music, fine arts, and play, particularly in a time of rapid change. However, there are somewhat differences between their approaches. While Korean teachers strongly define that traditional arts should be taught, Japanese teachers expect the playing and interesting—centered spontaneous approach to local materials.

Second, in both countries, educators and local governors currently take the tasks of transmitting traditional arts and culture, because the connection between generations became gradually thin. The educators hope, however, that craftsmen from each local should take those tasks.

Third, educators in two countries estimate themselves that in general, school teachers lack of performing skills of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and lack of ability for teaching appreciation of works. They want to have a broad perspective in order to explain the meanings of works of their traditional music. But, interestingly there are a few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opinions in two countries on the teaching ability of traditional fine art appreciation. While thirty-six percent of Korean answerers hope that they can systematically explain works of their traditional fine arts and crafts, fifteen percent

of Japanese answerers want to explain cultural assets of their region, seventeen percent of Korean answerers expect to do it.

Ten participators of this project agreed to the conclusion that although a few differences between opinions on definitions and educators' role for traditional arts and crafts exist among educators in two countries, their educational practice has something common in many aspects and needs similar studies in a more detail manner.